



명씨대종회 회장 명 위 진

새해를 맞으며 인사말씀 올립니다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라만상을 뽕뽕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동장군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명씨대종회 종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간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을 보내고 새로운 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소망을 모두 이루는,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저는 명씨대종회 회장이라는 과중한 책임을 맡아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우리 대종회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대종회를 맡아서 일해오신 전임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옵고, 우리 대종회의 지난해를 돌아보며 새해, 더욱 큰 발전을 위한 각오와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종회장으로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명씨들의 사당이 있는 지방 시제 등에 참석해서 많은 종친들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며 대종회를 이끌어 나가고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시제를 참석해보니, 시제의 날짜가 겹치거나 거리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방 시제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디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가는 곳마다 종친들께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셔서, 종친으로서의 따뜻한 정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런 뜻 깊은 자리를 우리 서로가 함께 하면 할수록 더욱 가까운 '식구'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흐뭇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의 시제가 더 많은 종친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을 숭모하는 종친 공동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지 않았습디만.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한 분의 시조황제의 후손이면서도 본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든 종친들이 중용의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견을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지금 우리 종친 간의 화목함을 흐트러뜨리는 등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한 뿌리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견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해 보는 것이 후손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슬기롭게 우리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우리 대종회가 추진했던 역점사업 가운데 '명씨대종보'의 창간과 '명씨대종회 홈페이지' 개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종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손에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홈페이지 개선은 종친 서로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종친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 새해에도 저는 우리 종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종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과 좋은 생각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도 돈독한 종친의 정을 담백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화목한 모습을 지키고, 자랑스런 황손의 모습을 당당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면서 대종회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종친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큰 발전, 그리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명씨 족보에 기재된 명씨의 근원 명씨대종회 명예회장 명 노 승

1. 서

한국 명씨는 중국 원나라 말기 중경을 중심으로 대하국을 세웠던 명옥진을 시조로 하고 있다. 명옥진은 1329년에 태어나서 1361년 왕이 되었고 1363년 대하국을 세우고 황제가 되었다. 1366년에 38세에 일찍 사망하면서 당시 10세인 명승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하여 명승이 2대 황제가 되어 대하를 통치하다가 1371년 당시 주원장이 세웠던 명나라에게 멸망하고 1372년(고려 공민왕 21년)에 고려로 이거하였다. 한국 명씨는 이때부터 한국에 살게 되어 현재 남한에 약 27,000명이 살고 있다.

한국으로 이거한 후 약600년 간 한국 명씨와 중국은 단절의 시간이었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왕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늘 불편한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왕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교 후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자연히 명씨의 역사가 밝혀지게 되었다.

명씨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82년에 중국 중경에서 명옥진의 예릉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명씨들은 이 사실을 국교 수교 후 뒤늦게 알고 중경을 방문하여 예릉에 참배하고, 각종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고 책자도 발간하여 왔다.

중경을 방문한 초창기에는 명옥진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명옥진에 관하여는 중경시 박물관이 발간한 "명옥진과 그 묘장연구"가 가장 자세하고 권위가 있는 책자였다.

이 책자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명옥진의 원래 성은 민씨였는데 명교를 신봉하여 명씨로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과거의 여러 가지 책자의 문헌 기재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고, 당시 중경시의 간부들도 모두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명씨 중 이 견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중국 호북성에 있는 명옥진 탄생지 기념관을 참배하면서 호북성의 명씨들과 만나게 되어 명씨의 원래 성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에는 약 30만 명의 명씨가 살고 있는데 이들의 종친회에서 연구한 결과는 명옥진은 원래 명씨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중경의 간부들의 의견이 명옥진은 원래 명씨였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필자는 틈틈이 우리 족보와 중국서적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많은 검토를 거친 후 신중히 내려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우리 족보에 과연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족보는 처음 발간한 신사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9회 걸쳐 발간되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1701년의 신사보, 1759년의 기묘보, 1776년의 병신보, 1812년의 임신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명씨의 역사에 대한 위 족보의 기록을 발췌하면 우리 선조들이 한국명씨의 근원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드러난다고 본다.

2. 족보상의 기재

가. 신사보의 기재

신사보는 “명씨사보 합부”라는 이름으로 1권으로 31절 발간되었는데 과거에 합격하여 보령현감을 하였던 명정구가 중심이 되어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명옥진 이후에 대한 기록만 있고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사보 발간시 발문을 썼던 신규가 명씨의 근원에 대하여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제기가 기묘보 서문에 나오고, 병신보에도 같은 의문제기를 하고 있다.

나. 기묘보의 기재

“서촉명씨족보”라는 이름으로 1권으로 14절 발간되었다. 이 족보의 첫 부분에 명옥진 이전의 명씨의 근원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필자는 이 기록을 처음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중요한 기록을 왜 명씨들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오래된 족보가 일반에게 배포되지 않았고 일부 소지했던 사람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도 중요하여 관계부분 원문 전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살펴보건대, 남사(南史) 「명승소(明僧紹)」 전에 말하기를, “그 선조는 오태백(吳太伯)의 후예이고, 백리해(百里奚)의 아들 맹명(孟明)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성으로 삼았다.”라고 하

였다. 그 후에 명씨가 중국 역사에 실린 것은 매우 드물다. 다만, 승소(崇僑)의 아들 산빈(山賓)이 당(唐)나라 때 명성이 있었고, 승업(崇儼)이 의약(醫藥)과 양생(養生)의 기술로 송(宋)나라 때 이름이 드러났으며, 참정(參政) 호(鑄)가 공업(功業)으로 지원(至元) 연간에 드러났고, 우겸(于謙)이 문장으로 (세상에) 명성이 있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들어보지 못했다.

또 살펴보건대, 사기(史記), 「오세가(吳世家)」에 “태백(太伯)이 죽고 자식이 없자 (태백의 아우인) 중옹(仲雍)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라고 하였다. 중옹(仲雍)의 후손들이 별도로 우(虞) 땅에 봉해진 자가 있어서 백리해(百里奚)가 나왔으니, 대개 이들은 중옹(仲雍)의 후손들이다. 그런 즉 명씨(明氏)의 선조는 그 내력이 오래된 것이다. 중국에 있을 때 맹명(孟明) 이전의 조상들은 세보(世譜)가 다른 지역에 떠돌며 침체되었던 나머지 비록 전해진 것은 없으나, 동쪽으로(우리나라) 귀의한 이후에는 그 세계(世系)가 면면히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아마도 중국인들이 옮겨와서 동쪽으로 귀의했던 것과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서관 종씨(西關宗氏)가 족보를 정리할 때 직강(直講) 신규(申奎)가 발문을 지으면서 맹명(孟明)으로 말미암아 성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니, 상고하고 조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미 상고하고 검토해 봤으나 너무 오래되어 밝히기 어려웠으므로, 생략해서 적었기 때문인 것인가.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중옹, 백리해, 맹명, 명으로 이어지는 명옥진 이전의 명씨 역사가 있는 것이다.

다. 병신보의 기재

“연안명씨보” 상, 하 2권으로 53절 발간되었다.

서문(18정)에 “우리 명씨는 후직에서 계출되어 맹명의 시대

에 이름을 성으로 쓰기 시작하여”라는 표현 뒤에 기묘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로 백리해보다 앞의 인물이기 때문에 병신보는 기묘보보다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옛 기록에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사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미처 옛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세대가 멀어 규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누락시킨 것인가”라는 의문을 또 한 번 제기하고 있다.

라. 임신보의 기재

“서촉명씨족보” 천, 지, 인 3권으로 62절 발간되었다.

서문(1정)에 “우리 명씨는 후직에게서 계출되어 백리해의 아들 맹명에게 이어져 이름으로 성을 삼았으니 그 실제 사적은 상고할 수 없으나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어

이상으로 한국 명씨 족보에 나타난 명옥진 이전의 명씨 역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명씨는 후직-중옹-백리해-맹명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옛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내용만 가지고 한국 명씨의 근원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기록은 앞으로 명씨 역사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옥진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연구, 검토를 한 연후에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편의상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고, 앞으로의 글에서도 생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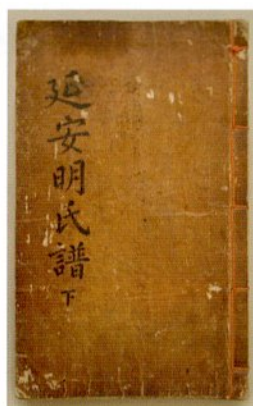
1701년 신사보 명씨事譜 합부



1759년 기묘보 서촉명씨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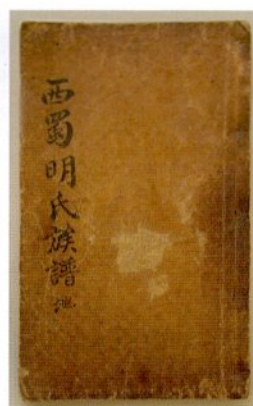
1776년 병신보 연안명씨보 상



1776년 병신보 연안명씨보 하



1812년 임신보 서촉명씨족보 천



1812년 임신보 서촉명씨족보 지



1812년 임신보 서촉명씨족보 인

우리의 시조, 명옥진 황제 이후 우리 관계의 기록 - 명씨족보

(명씨대중보 편집위원회)

자랑스런 우리의 시조, 중국 대하국 명옥진 황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명씨 핏줄의 흐름과 그 관계를 기록한 우리의 족보는 그동안 어떻게 발간되어 왔을까?

첫 족보가 발간된 것은 1701년(辛巳年, 조선 숙종 27년), 이 신사보(발간년도를 족보의 명칭으로 함)는 1권으로 총 31권이 발간되었으나, 현재 현존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우리 족보는 이 신사보를 포함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짧게는 17년, 길게는 80년의 기간을 두고 발간되었다. 기묘보와 병신보가 17년, 그리고 임신보가 8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 경과된 뒤 발간되었다.

대중회에서는 최초의 족보인 신사보 1권을 비롯한 초기에 발간된 족보, 즉 기묘보 1권, 병신보 2권, 임신보 3권 모두가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이를 영인본으로 제작하였다. 영인본 작업은 지난 2009년 3월에 시작, 2010년 10월 완성할 때까지 총 1년 7개월이 소요되었다.

작업은 제본된 원본 족보를 낱장으로 분리한 후 사진 촬영

을 하고, 이를 인쇄용 필름으로 만들어 원본처럼 한지에 인쇄를 한 것이다. 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원본족보가 목판 글자를 조각해서 인쇄했듯이 인쇄용 필름 하나하나를 원본과 대조하며 먹판글자를 정확한 모습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만 꼬박 3개월이 소요되었다.

작업 전 과정의 진행과 감리는 현, 대중회 홍보위원장이자 대중보편집국장인 한성대학교 명광주 교수가 맡았고, 인쇄제작은 명병주 종친이 맡았다. 작업비용은 당시 대중회 부회장인 현, 명위진 대중회장께서 일체를 지원하였다.

이후 영인본은 마침내 2009년 10월, 명씨대중회가 제작한 영인본임을 표기하여, 2010년 7월에 인쇄와 제본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고, 전국의 지방총친회와 일부 종친, 대중회 사무실, 예릉전시관, 황제탄생지 기념관 등에 비치하여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의 족보 명칭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701년 신사보 서촉명씨보(辛巳譜 西蜀明氏族譜), 1759년 기묘보 명씨사보 합부(己卯譜 明氏事譜 合部), 1776년 병신보 연안명씨보 상·하

(丙申譜 延安明氏譜 上·下), 1812년 임신보 천·지·인(任申譜 - 西蜀明氏族譜 天·地·人).

최근에는 영인본 족보의 서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명옥진 시조 이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번호	발간년도	족보명	권수	발간량(절)
1	1701	신사보	1	31
2	1759	기묘보	1	14
3	1776	병신보	2	53
4	1812	임신보	3	62
5	1892	임진보	7	64
6	1925	을축보	11	66
7	1957	정유보	6	172
8	1986	병인보	4	1,252
9	2003	계미보	4	1,000

우리의 시조, 대하국 황제 명옥진을 기록하고 있는 현궁지비(玄宮之碑)

1982년 중국 중경의 명옥진 황제의릉, 예릉(叡陵)에서 출토된 현궁지비.
황제의 치적과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명위진 대중화장이 소장하고 있는 현궁지비의 탁본.

명씨의 본, 서촉(西蜀)? 연안(延安)?

고려대 법대교수, 교무처장 明 淳 龜



명씨들 대다수의 본은 서촉(西蜀) 또는 연안(延安)이다. 서촉 명씨와 연안 명씨가 모두 옥진(玉珍) 할아버지의 후예로서 동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옥진 할아버지는 현재의 중국 중경(中慶)지역에서 1363년 대하정권을 수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나라를 세운 후 세금면제, 침략금지, 신흥문교(新興文教) 등을 내세우며 선정을 베풀다가 1366년 승하하였다. 그 후 승(昇) 할아버지가 황위를 계승했으나 주원장의 명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1372년 고려에 귀화하여 그 이후 우리 후손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다. 후손들은 옥진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고 그가 나라를 세웠던 서촉을 본으로 하였다. 한편 황해도 연안은 자헌공 의(儀)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렸던 지역으로 명씨 중 일부는 연안을 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역사를 고려하여 1986년 간행된 명씨대동보(明氏大同譜)는 서촉과 연안의 합본으로 되어 있다.

서촉 명씨와 연안 명씨가 동족이라면 본(本)을 통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성(姓)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본은 통상적으로 시조의 발상지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시조를 같이하는 동족은 동성동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일 뿐 사회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과 본이 동일하더라도 동족이 아닐 수 있다. 가령 사흥과 당흥으로 구분되는 남양홍씨는 동성동본이지만 동족이 아니다. 이와 달리 동족이면서도 성과 본이 다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가령 강릉김씨와 광산김씨는 동성이본이지만 동족이고, 안동김씨와 안동권씨는 이성동본이지만 동족이다.

서촉명씨와 연안명씨는 동성이본(同姓異本)의 동족이며, 이러한 사실은 명씨대동보에 잘 나타나 있다. 게다가 강릉김씨와 광산김씨의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이본의 동족이 서촉명씨와 연안명씨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굳이 서촉과 연안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통일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것은 명씨 특유의 응집력 때문으로 보인다. 옥진 할아버지의 후손은 동성동본을 보유한 정신적 통일체로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천성만본(千姓萬本)이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본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1985년 이후 2000년 인구조사에서 새로 나타난 본만

830개에 이른다고 한다. 명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의 통계자료는, 명씨의 본으로 연안과 서촉 외에 해주, 성도, 황해, 청양, 개성, 면천, 중화의 모두 아홉 개를 보고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청양(4가구 15명), 개성(1가구 2명), 면천(1가구 1명), 중화(1가구 1명)의 4본은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없다가 2000년 인구조사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들이다.

왜 이렇게 많은 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 여성과 결혼, 국적을 취득하면서 명씨 성을 차용하고 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정해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 안산 명씨가 탄생하게 된다. 법원으로는 이미 안산 명씨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 안산 명씨는 옥진 할아버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명씨의 경우에도 동족 여부는 족보로 가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촉과 연안 중 어느 하나로 본을 통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두 개의 본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안이 종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전례의 유무를 떠나 본을 통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한 것일까? 참고할 만한 사안으로 '류·라·리'와 같은 성씨를 한글로 기재할 때 두 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인데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의 정정신청을 받아 '유·나·이'를 '류·라·리'로 정정해 주었다.

그런데 서촉 명씨와 연안 명씨의 본을 통일하는 문제는 위 사안과 달리 헌법상 기본권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법논리적으로 굳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니지만, 본을 통일하고자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적·정신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대중회 발전과 우리의 미래인 후손들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십시오

명씨대중회 재정위원장 명 호 근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힘찬 기상으로 하시는 일,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고, 댁내에 만복이 깃들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명씨가 황제의 후손이며, 우리 명씨대중회가 황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긍지와 보람을 생각하면, 우리 명씨대중회는 지금보다도 더 활발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더욱 많은 사업을 지금 알차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하국 황제의 후손이신 우리 종친여러분! 우리 명씨대중회가 어떠한 성씨의 종친회보다도 최고의 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종친이라면 누구라도 의무감을 갖고 참여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대중회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을 차레차레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성인 종친들이 의무적으로 연 1만원 이상을 명씨대중회 발전기금으로 약정, 매년 정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친회 발전을 위한 종친들의 참여는 당연한 의무이고, 이는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실질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정기적으로 명씨대중회 발전기금을 찬조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 등 우리 종친들이 기대하는 바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감사의 뜻으로 성의껏 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 종친 모두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대중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현물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증물품을 종친들에게 시중 판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부가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간접적인 발전기금 출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우리 명씨 종친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명씨대중회가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회 자체의 수익발생 방안에만 한 아이디어를 찾을 생각입니다. 마음을 열고 열심히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중회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든든한 대중회 재정구축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대중회

재정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 명씨대중회 총 수입은 ₩69,571,000원, 총 지출은 ₩31,644,000원 현재 잔고는 ₩37,927,000원입니다. 이 중 ₩25,000,000원은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MMF로 예금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명위진 회장 ₩5,000,000원, 명동성·명호근 부회장 각 ₩2,000,000원, 명광길·명노문 부회장 각 ₩1,000,000원, 명태식·명계권·명순식·명광주·명순구 상임이사 각 ₩1,000,000원의 임원연회비와 '소셜명족진' 일반 판매대금 ₩14,500,000원과 명위진 회장님 잔여소설 구매지 ₩4,900,000원, 2012총회 찬조금 ₩10,540,000원(70명), 2012 경모사 시제 찬조금 ₩18,700,000원(114명), 그리고 이자수입 ₩3,700,000원이며, 지출은 경상운영비 ₩16,000,000원, 총회경비 ₩3,830,000원, 파주시제 경비 ₩3,500,000원, 지방시제 항목비 ₩2,100,000원(7개 지역), 지방시제 참가지원경비 ₩2,930,000원, 중국 강북구청 문화교류단 접대비 ₩1,740,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릉참배경비 충당을 위하여 2004년부터 모금한 예릉기금 ₩103,000,000원은 명씨대중회장 명의로 1년 만기 정기예금하였

으며, 당초 이자수입으로 예릉참배경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율 변동과 황제탄생지 참배가 추가되는 까닭에 경비가 부족하여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중회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씨대중회 예산의 회계연도는 대중회 규정에 의거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이며, 대중회의 예산집행 내역은 매년 5월 정기총회 시 결산 및 감사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에도 명위진 대중회장님께서 파주 시제 시 ₩2,000,000원과 제물비 및 중식대, 지방시제 참석식 석식대 및 숙박비지원, 명씨대중보 발간, 경모사 엠프시절 구입, 예릉과 경모사 제관복 구입, 중국 강북구청 방한단과 중정시간부 선물, 파주시제 사진첩제작 비용 등 모든 행사 때마다 찬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친여러분! 아무쪼록 기본재산과 수익사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종친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적 네트워크 명씨대중회 부회장,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 동 성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자

기를 도와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중국인의 강연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경,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중국어 자료를 찾던 중에 대만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선배가 특강하였던 내용을 살펴본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만의 IT산업분야의 1인자, 즉 우리나라의 이진희 회장 같은 분이 졸업하는 대만대학의 후배들을 상대로 하는 특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 주로 하는 말들이 정해져 있다. 큰 포부를 가질 것, 또는 영어공부의 중요성,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기술분야의 중요성이나 근면성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나 식상할 뿐더러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조언들은 하지 않았다. 지금 내기를 해도 좋는데 여러분들 중 20년 후에 무엇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20년 후에 약속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있으면 본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인생은 절대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면성실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성공하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만큼은, 자기가 살아보니 운 좋은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운 좋은 사람을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아, 어머니를 졸라 미국 가는 여비만을 마련하여 미국에 도착하였던 중국 강연자는 고학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초로 시작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만에 귀국하여서는 대만 최대의 컴퓨터 관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자신의 성공을 운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당시 대만 사회의 유력 인사들 중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읽으면서 흥미롭기는 하지만 아무리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대만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회의 저명인사가 대학을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강연자는 인생을 살면서 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은 지를 살펴봐왔다고 합니다. 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연자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운의 의미는 우연에 의한 행운이 아닌, 잘 쌓여진 인간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필연의 운이었던 것입니다.

이 강연자의 경험처럼 인간의 삶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하루하루

의 인간관계가 축적되어 인생의 성적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연이 언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인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던 제 경험담을 하나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검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모 대학 총장, 당시 제주교육감들과 함께 천진 교육청 부교육감이라는 분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자들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중국 교육체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던 중 중국에서 영재학교, 우월반 편성, 우수학생의 월반제도, 외국학교의 분교 도입 등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연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제도가 가능한지, 국민의 저항은 없는 것인지 등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의 답변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면서 현재 중국의 교육목표를 다음의 4가지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국제인이 되어야 하며, 자기 전문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인간관계 즉 관(關係)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의 3가지 국제인, 전문인, 조직역량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교육의 주요목표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이야기에서처럼 인간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이라 함은 인적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보적인 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나 공적 사회적 국제적인 관계로까지 성장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단계의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적인 종친회 활동은 분산된 개인 역량을 한데 모아 종친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혈연에 기반을 둔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학회 조직은 장차 사회에 나가 활동 하여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명씨 종친회와 장학회가 우리 종친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큰 울타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장학혜택을 받은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종친회 참여로 우리 종친회가 활력이 넘치고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파주시당, 경모사 건립을 회상하며... 명씨대중회 고문 명완석



1989년 나는 명씨대중회(회장: 고명화섭)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때는 총무이사가 대중회의 행정사무를 도맡아 했던 때였다.

대중회 사무실은 마포구 연남동 고명지씨의 명성건업 사무실 한 귀퉁이에 책상하나를 놓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통장잔고는 거의 바닥이었다. 무엇인가 종친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려해도 당장의 우편료조차도 없었다.

당시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대중회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장단, 고문, 이사, 감사 등 31명으로 명씨친목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명칭은“명씨친목계모임”으로 하고, 정기월례모임을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6시30분, 서대문구 연화동에 있는 성산화관에서 열어 매월 2만원의 회비로 모임을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식사비용은 제비뽑기로 2인을 선정, 당첨된 회원이 당일의 식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회비의 50%를 대중회 운영비로 적립하여 사무실운영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겨우 겨우 대중회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종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당만큼은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그 의지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자금 모금이었다. 사당건립을 위한 대지 구입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 1996년 12월 서울시청 앞 프린스호텔에서 회장단 송년간담회가 열렸을 때에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쑥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이 대지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헌납 약정서에 서명해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나의 제안에 대해 회장을 비롯한 전 회장단이 뜻을 모아 호텔로비에서 호텔메모지 뒷면에 헌납금액을 기록한 약정을 받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고명화섭 회장 200만원, 고명동근 고문 200만원, 고명기식 부회장 100만원, 명의식 부회장 300만원, 명완식 부회장 300만원. 약정서를 받아든 고명화섭 회장과 나는 용기를 갖고 바로 다음날부터 대지물색에 나섰다.

내가 심상소학교 5학년 때의 음력설 즈음, 나는 형님들을 따라 당시 우리 마을에서 50리를 걸어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봉화리(일명 가미마을)에 위치한 명씨의 본래사당을 참배한 적이 있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15평 정도의 그

리 크지 않은 규모였다고 기억한다.

내부에는 우리의 시조 대하국 명옥진 황제, 2세조 명승, 그리고 3세조 4형제분의 영정이 걸려있었다. 사당관리를 하던 오촌 아저씨가 우리 형제들에게 사당 안내를 해주신 기억이 난다.

바로 그 기억 때문일 것이다. 고명화섭 회장과 고명지식 부회장, 그리고 나는 바로 이 본래의 명씨 사당이 있는 황해도 연백군과 가까운 강화와 김포일대에 사당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여 그곳에 있는 수십 군데의 산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지 가격도 그렇고 산세와 방향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근 한 달 여를 지나서 지금 사당이 있는 파주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것이 운명인지 인연이었는데는 모르지만 현재의 사당이 있는 바로 그 곳에 발걸음을 멈춰 섰다. 산세를 보는 안목이 특출했던 고명화섭 회장이 그곳이 사당자리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세와 방향 등이 그 동안 보아 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땅을 어떻게 매입하느냐가 문제였다. 우리는 이곳 파주 파평면장이 우리 종친인 명영국(현, 명씨대중회 고문)씨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전까지

는 명영국 면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터였다. 그러나 고명화섭 회장과 나는 면사무소로 달려가 명영국 면장에게 전후사정을 말했다. 초면에 만난 명영국 면장의 반응은 이외로 좋았다. 그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땅 매각을 꺼려하는 지주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매매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면을 통해 명영국 고문에 감사사를 표한다.

또한 계약금 300만원도 문제였다. 다급해진 나는 당시 경제사정이 좋아 보이던 축협중앙회장 명의식 부회장(현, 명씨대중회 명예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 결정 경위와 계약금의 필요성을 설명, 흔쾌하게 송금결정을 받아 계약금을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오늘의 명씨 사당인 경모사 건립을 위한 대지매입이 천신만고 끝에 성사되었던 것이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더듬어 두서없이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 명씨의 사당인 경모사 대지구입 과정과 경위를 간략하게 정리해 둔다.

<제례에 관한 소고> 제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명씨대중회 제례공동위원장 명을식



1. 인간은 언제부터 제례를 올려왔는가.

대자연에는 인간이 맞설 수 없는 천재지변과 풍운조화의 막강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 일찌감치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자의 존재를 간파한 인간은 그 옛날부터 인간의 길흉화복,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등은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대자연의 모든 것, 즉 산, 땅, 물, 바다, 하늘, 바위, 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물과 동물 그리고 부뚜막, 가락까지도 신성시하고 숭배하였다. 대자연 앞에는 인간의 힘이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까닭이다.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무병장수, 그리고 풍년과 풍어를 그들을 향해 기원했다. 절대 힘을 가진 자연신에 대한 숭배의식이었다.

이처럼 미약했던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초인간적인 조상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들을 숭배하는 의식으로서 오늘의 제례의식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인간은 왜, 제례를 올리는가.

예법을 기록한 예서(禮書)에 따르면, 제왕(帝王)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

자이며, 보통 사람에게는 조상이 절대자라는 사고에 연유한다.

조상을 우러러 사모하는(崇慕) 의례가 제사인테 가례(家禮), 즉 가정의례에서 말하는 4가지의 관혼상제(冠婚喪祭)의례 중 하나가 제례(祭禮)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제례가 기제사(忌祭)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孝)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부터 효는 효행지본(孝行之本)이라 하여 인간의 모든 행실 가운데 가장 으뜸이 효행이라고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조상을 향한 보답이며, 근본 뿌리에 대한 보답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 즉 생겨나고 자라난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도 내가 없으면 펼쳐지지 않기에 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지금 여기 이렇게 나를 있게 한 것이 조상 때문이므로 조상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외무물(身外無物), 즉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조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며, 나를 존재케 뿌리에 대한 감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 모시기를 살아계신 조상 모시듯 하라는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이라고 하는 말과 효라는 것은 조상이 살아계실 때만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효종신기행(孝終身己行)이라는 가르침에도 근거하고 있다.

3. 누구에게 제례를 올리는가.

인간 역사만큼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져온 제

례는 처음에는 풍운조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자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초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빌고 바랐을 것이나, 고려 말과 조선조의 제례규정을 보면 당시의 그 범위를 살필 수 있다.

1). 고려말 정몽주(포은)의 제례규정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 7품관 이하의 부모까지 당대만 제사를 올리도록 신분별 차별을 두었고, 2). 조선조 경국대전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 7품관 이하의 조부모까지 2대까지 제사를 올리도록 규정하였다.

3). 1894년(고종31년) 김홍집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를 철폐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모두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생전에 고조부모까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4).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된 후 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올릴 것을 권장하였으나, 큰 효용을 얻지 못했다.

4. 이제 제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에 이르러서 제례는 서구 문명과 사상, 그리고 외래 종교의 전파로 말미암아 조상숭모의 전통이 다소 희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상에 대해 제사를 올리는 것을 꺼리거나, 미신숭배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실제 우리는 주변에서 한 가정 내, 동기간에도 제례문제로 말미암아 작은 갈등을 빚는 경우를 보아 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치



럼 사상과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인간 본분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종교나 사상은 자유다.

우리 종친 모두는 이 제례 문제에 대해서만 큰 지혜로워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과 모습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화합해야 한다.

아무튼 우리의 뿌리,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은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를 지라도 언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희석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제례절차와 제례의식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2012년 지방시제 참가보고

명씨대중회 상임부회장 명 광 길



지난해 우리 명씨 대중회는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을 더욱 높이고 중앙 종친과 지방종친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시제 참가를 결

정하고 대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이 지방시제에 참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명씨의 지방 사당 위치와 시제일, 그리고 지방시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제에서 느낀 단상을 정리해본다.

이번에 참가한 지방시제는 1) 청양지역(충남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현모제/ 11월 16일(금) 20명), 2) 창원지역 (경남 창원시 대원동 모원제/ 11월 18일(일) 14명), 3) 태안지역(충남 태안군 태안을 평천리 선영/ 11월 23일(금) 14명), 4) 서천지역(충남 서천군 판교면 수성리 경명사/ 11월 25일(일) 7명), 5) 금산지역(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2리 가덕사/ 11월 25일(일) 5명), 6) 고흥지역(전남 고흥군 동이면 덕흥리 영모제/ 11월 27일(화) 15명)으로, 총 75명이 참석하였다.

지역별 시제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1) 청양 현모제 시제는 총랑공파 4세부터 13세까지 42분을 모시며, 제일 위 분이신 4세는 석자 신자분이며 사당이 리모델링을 하여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고 중앙종친회에서 가신 분이냐 현지 거주 종친 모두가 제례복을 입고 많은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들여 준비한 제물로 시제를 올렸다.

2) 창원 모원제 시제는 제일 장손 자원공파 16세부터 22세까지 60분을 모시며, 제일 위 분이신 16세는 광자 세자 분이냐 모원제 위치가 창원시 대원동 중심가에 있으며 가정집 분위기이며 지방마다 시제의 특성은 있으나 세(世)를 달리 할 때마다 축문을 읽고 시제를 올리는 것이 특색이었다. 시제 전일 중앙종친회 회원과 창원지역 종친 간 회장주최 만찬을 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종친간 우의와 친목을 다졌다.

3) 태안지역은 사당이 없으므로 태안을 평천리 선영에서 시제를 올리며, 총랑공파 8세 구자 수자 헌분을 모신다. 전국 6개 지역 중 유일하게 선영에서 시제를 올리며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 날은 시제준비와 시제에 고생이 많다고 하나, 지난 시제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 정성들여 준비한 제물로 차분하게 시제를 올릴 수 있었다. 서산 태안지역은 전국에서 종친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서천 경명사 시제는 총랑공파 8세부터 18세까지 122분을 모시며, 제일 위 분이신 8세는 일자 신자분이며 선산 끝자락 남향에 자리 잡은 사당은 지방 사당 중 가장 잘 지어져 있으며, 주변 환경도 좋았다. 시제를 마친 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소재 선산의 조상의 묘를 참배하는 것도 특색이 있었다. 특히 창원지역 명흥조 회장님과 명수철 부회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서천시제에 참석, 친밀감을 더했다.

5) 금산 가덕사 시제는 총랑공파 11세부터 19세까지 17분을 모시며, 제일 위 분이신 11세는 진자 학자분이며 가덕부락마을 한가운데 가정집모습의 사당이 있으며 대부분 종친이 연로하시고 세대수도 적은 편이나 명병문 회장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근래에는 객지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시제일이 매년 서천시제일과 같은 날이라서 참석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제일을 조정해보려고 논의하였으나 오랜 전례와 지역사정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6) 고흥 영모제 시제는 3세조 4형제중 막내 시랑공파 후손 12세부터 21세까지 98분을 모시며, 제일 위 분이신 12세는 득자 용자분이며 사당 영모제는 고흥군 동이면 덕흥리 내나로 도설에 위치하고 있다. 덕흥리에는 명씨 집성촌으로 60여가구가 거주하고 시제상에

올리는 해물은 외지에서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이 종친들이 직접 바다에서 잡은 해물을 올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제물로 많은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시제를 올렸다. 고흥시제 참가는 창원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제 하루 전 대중회장 주최 만찬에는 처음으로 덕흥리 시랑공파종친 8명과 신금리 총랑공파 종친 8명이 함께 자리를 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친 간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덕흥리 시랑공파시제에 신금리 총랑공파 종친이 참여하고 익일 신금리 총랑공파 시제에 덕흥리 시랑공파 종친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내나로도 덕흥리 시랑공파종친과 외나로도 신금리 총랑공파종친 시제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고흥지역 시제 참가에 아쉬운 일이 반복되는 것은 동일면 덕흥리 시랑공파 시제일 다음 날부터 2일간 선영에서 봉래면 신금리 총랑공파 시제가 있지만, 일정상 시제 참가를 못하고 올라온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방시제 참배 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시제를 올리는 조상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으면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방시제 활성화를 통해 종친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3년 명씨대중회 신년하례회 개최



명씨대중회는 2013년 1월 11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 명동역 근처 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총 5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개회사, 국민의례, 조상에 대한 묵념, 명위진 대중회장 신년사, 참석자소개, 명호근 재정위원장 재정보고, 명동성 대회장 학회 이사장 인사, 2012년 주요업무 및 2013년 예정행사 보고, 2013학년도 대회장학금 신청안내(사무총장 명순식), 명노승 명예회장

의 명옥진 황제 선대 역사에 대하여 기묘보, 명신보, 임신보 족보 서문 기재내용 설명, 축하케익 절단식, 기념촬영, 건배제(명의식 명예회장), 만찬,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명노준 사무국장은 2012년 명씨대중회 주요업무를 1) 예릉참배 및 황제 탄생지 방문, 2) 제34차 정기총회, 3) 소설 명옥진 한글판 발간, 4) 명씨대중회 회칙개정, 5) 고문추대, 임원, 이사위촉, 6) 고문, 임원 특수임무 부여, 7) 명씨대중보 창간, 8) 제관복 구입 및 앱프



시설 교체, 9) 명씨대중회 홈페이지 교체, 10) 파주 경모사 시제, 11) 대중회 지방시제 참가, 12) 중국 황제 기념관내 제2세조 명승 전시관 시설비 지원, 13) 장신현 주한 중국대사의 대중회 임원초청 만찬참석, 14) 중국 중경시 강북구청 문화교류단 방한 (예릉 관리청) 등으로, 그리고 2013년 주요 예정 행사로는 1)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제647주기 예릉참배 및 황제 탄생지 방문, 2) 2월초의 대중보 2호 발간, 3) 5월 5일의 정기총회 개최, 4) 10월

3일에 있을 파주 경모사 시제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대중회 명위진 회장이 고급머플러 100개, 그리고 보령지역



고문 명옥식 종친이 김 50박스를 찬조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신년 선물로 제공하였다.

명씨대중회 사무국장 명 노 준

축“명씨대중보 창간”



명씨대중회 명위진 회장님, 명노준 사무국장님께 드립니다. 우선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가 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광주 고 명노근 교수부인 안성례입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으면서도 부득불 명씨대중회에 무관심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고 명교수가 광주5.18민중항쟁의 위큰 큰 역

사적 사건의 중심에서 많은 일이 많았고, 또 명교수가 13년 전 세상을 일찍 떠나다 보니, 그리고 중학교 교사였던 명교수의 동생마저 몇 년 터울로 소천하여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연락만 주신다면 적극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명동성 검사장께서 광주에 계실 때, 여러모로 큰 도움과 힘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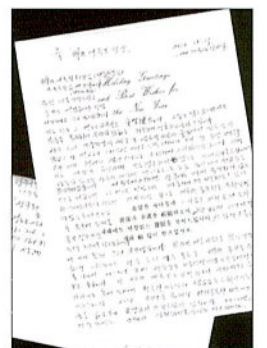
명씨대중보에 의하면 광주에는 명씨종친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광주에도 명씨종친회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

니다. 제 나이 올해 76세입니다. 꼭 한번 서울 명씨대중회 사무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광주, 순천, 여수, 목포 등 종친들의 주소를 확인해서 2013년 초에 광주 동구 장동의 아람 명노근 선생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모여보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황족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면과 글을 읽고 보니 존경심과 자랑스러움이 넘칩니다.

2013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모두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글은 안성례 씨가 보내온 신년 카드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안 성 례

(고 명노근 교수의 부인,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전 광주시의회 초대부의장)

명씨대중회 임원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초청 만찬회 참석

지난 2012년 12월 5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명씨대중회 임원들을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사관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명씨대중회 명위진 회장을 비롯한 명광길 상임부회장, 명노승 명예회장, 명호근 명동성 명노문 부회장, 명태식 명순식 명광주 상임이사, 명인식 감사, 명노준 사무국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만찬에 앞서 가진 명위진 회장과 장신썬 대사와의 환담과 만찬사에서 명위진 회장은 중국 대하국의 황제가 시조부이신 인연으로 오래도록 중국 및 중국대사와 우의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오므로써 마침내 대중회 임원 초청 만찬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형제애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신썬 대사는 자신이 한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 명씨대중회가 환대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된 것도 명씨대중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 만남 내내 친밀감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키운다 - 명씨대중회 산악회

명씨대중회 산악회가 2013년 올해 들어 첫 산행으로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을 다녀왔다. 우리 종친들과 함께 하는 산행은 그 어떤 멤버들과 하는 것보다도 늘 분위기가 즐겁고 화기애애하다.

전임 대중회장이셨던 명노승 명예회장님은 거의 매번 산행에 참석하신다. 지난 해 가을 청계산 산행에는 명위진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두 분의 산악회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 같다.

특히 명위진 회장님은 언제 어떤 곳에서도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신다. 그 따뜻한 모습에서 종친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아무쪼록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산행, 함께 하는 내내 행복한 웃음과 즐거운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종친들

끼리 함께 하는 산악회 행사가 오래오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

산행을 함께 하실 종친은 명영식 산악회장(전화 017-233-8204)에게 문의하면 된다.



중국 중경시 강북구청 문화교류단 방한



지난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중국 중경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왕구 문화부국장, 장명 예물관리소장 등 11명(남6, 여5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명옥진 황제의 예릉 전시관 전시자료 수집과 파주 경모사 방문을 비롯한 후손들의 생활상 파악, 그리고 우호증진을 위해서다. 2012년 12월 12일 오후 6시, 퍼시픽 호텔 1층 별관에서 열린 대중회장 주최 만찬에는 방한단 전원이 참석, 우리 대중회 임원(명위진 회장, 명노승 명예회장, 명호근 명광길 명노문 부회장, 명태식 명순식 명인식 명노준 명광주 상임이사)들과 예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구 문화부국장은 현재 예릉의

릉 내부는 높이 3.1m의 투명 원형 유리관을 통한 빛이 릉 내부를 비추게 하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야외에 2.1m 크기의 황제 동상이 완공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황제 동상 앞에 제상을 설치, 그 곳에서 시제를 올려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초 예릉발견 시 발굴된 황제의 곤룡포는 현재 중경시 3협박물관에 전시 중이므로, 예릉 전시를 위해 전시용으로 재제작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명위진 대중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전시를 위해 곤룡포를 한 벌 더 추가제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앙공원 내 설치된 예릉입구표지판의 '明玉珍墓'를 '明玉珍陵'으로 수정해줄 것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명위진 대중회장은 방한단 전원에게 각각 금일봉과 지갑을 선물로 전달하고, 중경시장, 서기, 문화국장, 강북구청장, 강북구문화국장,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전 문광상 서기 등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명씨대중회장의 친서와 명씨대중보(창간호)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청양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명광민 신임 도유사 선임

2012. 12. 16일, 청양 운곡에서 청양지방 종친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도문장 명효식(22세) 등 30여명의 종친이 참석하였으며, 2012년 4/4분기에 추진되어졌던 연묵동 대산소(명응규)의 보수공사와 운곡제각(현모제) 보수공사 찬조금 기부자에 대한 기념비 건립(찬조금 기부자 연명표기)안을 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임 도유사로 명광민(23세) 종친을 선임하였다.

명광민 신임 도유사는 명씨대중회 명위진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지방종친회 활성화책

획에 적극 부응할 생각이며, 기존의 소 종파 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문장을 보필하고, 중앙의 명씨대중회와의 연대감 확대는 물론, 청양지역 종친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명광민 도유사

남녘 마을 종친들의 삶 이야기 고흥덕흥 지역종친회 총무 명 광 연



전라남도 고흥반도의 끝자락, 섬 나로도. 어디를 가나 갯 내음이 가득하고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거문도나 백도 등을 오고가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뱃고동이 구슬피 우는 곳. 일반인들에겐 이제 나로도 우주센터로 더 알려진 곳이라고 하겠다.

나로도에는 5개의 유인도와 몇 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과 통일면의 두 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

1992년 경 연육, 연도공사가 완공되어 이제 나로 제1대교와 나로 제2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섬마을의 전형적이고 순수한 모습이 어느 정도 퇴색은 되어 있지만, 육지 연결로 인해 섬주민의 일상생활은 편리함이 더해진 것도 사실이다. 아쉬움은 섬주민으로 살았던 예전의 애환이나 감상을 조금씩 잊어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곳 나로도에서 살아가는 자랑스런 황손, 명

씨들은 척박한 섬 환경에 잘 적응하며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오순도순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행정구역상 봉래면인 외나로도 신금마을에는 총랑공 후손들이 몇 가구, 통일면인 내나로도 덕흥리에는 시랑공 6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그리고 내나로도와 연결한 포두면 등에도 시랑공 후손들 상당수가 살고 있다.

여느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젊은이들은 거의 도시로 떠나가고, 반백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귀향하는 조금 젊은 종친들이 있기는 하나 50대 나이의 몇 세대 종친들이 종중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다.

반농반어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종친들은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조상님에 대한 숭조 사상이나 종친간 유대는 어느 지역 혈연이나 종중보다 견고하다고 자부한다.

집성촌이라고는 하지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로는 티격태격 작은 다툼이나 갈등도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다.

통일면 내나로도 시랑공 집성촌 덕흥 마을은 1992년에 영모재라는 문중 제각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시랑공 합동 시제

를 지내고 있다. 고흥반도에 처음 자리를 잡으신 12세조 내외분 이하 현재 98위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혹자는 왜 그렇게 많은 분을 모신냐고 의아해 하시지만, 굳이 알려 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어떠한 불만이나 이의제기도 없이 조상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생각으로 여러 조상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으로 시제를 올린다.

이곳 고흥의 12세조께서는 당시에 통정대부 공조참의를 지내셨는데, 임진란시 이곳 고흥으로 피란하셨다가 그대로 머물게 되셨다고 전해진다. 고흥 포두면 마복산 기슭에 자리한 어르신 묘소 별초는 아직까지는 젊은 종친들이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길도 없는 첩첩산중이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적지 않다.

속담에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종친들은 멀리 도회지에 생활 터전을 갖고 살아가며 시제 때 가끔 들르는 게 고작이어서 선조들의 산소가 어디인 줄 몰라도 흠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듯하지만, 고향에서 살아가는 이곳의 후손들은 자손 도리를 하느라 매년 묘소와 제각 관리 그리고 시제를 올리느라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럼에도

매년 올리는 시제는 이곳 종친들에게 익숙한 분위기 속의 축제다.

평소엔 바쁘지만 시제날만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시제 후에 열리는 문중회의에서는 각종 문중사가 다루어지는 데,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문중 문제들은 한 차례 흥역을 치루고 나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곤 한다. 이후 이어지는 종친들과 나누는 한잔 술자리는 서로가 종친이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계속 늘어만 가는 신위를 모시기 위해서는 협소한 제단시설도 문제이고, 시제를 위한 예산 확보, 별초 등 묘소관리도 큰 문제다. 어떻게든 풀어야할 숙제이지만, 여러 종친들이 모여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것이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없듯, 선조들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 후손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는 날까지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산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예릉참배 및 황제탄생지 방문신청 안내

중진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중경시 소재 명씨 시조 황제 예릉 참배와 호북성 수주시 소재 황제 탄생지 방문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송조하는 마음과 중진 간 친목 도모를 위하여 중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참배 및 방문기간 :

2013년 3월 15일(금) ~ 3월 20일(수), 5박 6일간

2.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까지

3. 1인당 경비 :

인천공항출발 : 1,450,000원 (개인경비 제외)

김해공항출발 : 1,440,000원 (개인경비 제외)

※ 노탑, 노읍선, 노쇼핑

※ 관광지 :

중경시 - 삼협박물관, 조천문광장 (황제 역사기록)

수주시 - 명씨성산 청림산 산행, 산농 또는 시내관광

북경시 - 천안문광장, 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 명13릉 등

4. 경비납부기간 : 2월 18일까지 입금.

5.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5-0022-907(주) 하나투어비즈니스

6. 인적사항 알림 : 전화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9번 연락전화 번호로 알려주시고 여권사본 여백에 한문성명 (한자 명단 작성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여권 복사본 보낼 곳

1) 여권은 3월 15일 출발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야함.

2) 여권의 사진이 부착된 부분을 복사하여 한자 성명기록 후 팩스번호 02-6007-1650번으로 2월 18일까지 보낼 것

8. 항공권 구입 시 여권 상의 실제명단이 필요하므로, 기한 내 신청 후 경비 입금요망.(최근 중국인 한국관광객 증가로 좌석 한정예약 됨 : 인천48석, 김해 16석).

9. 연락전화

1) 선정여행사 하나투어 : 차장 김종우 : 02-2076-2222, 010-2707-8317, FAX: 02-6007-1650 (여권복사 수령 확인요망)

2) 대중회 사무국장 명노준 : 010-2555-1760

HanaTourBusiness

1등 여행사 www.HANATOURBIZ.com

★ 중경/수주/북경 6일 ★ - 김해공항출발					
담당자	차장 김종우 02-2076-2222/팩스02-6007-1650 010-2707-8317		여행일정	2012년 3월 15일 ~ 20일	
비용	1인당 : 1,440,000원				
포함사항	항공비, 항공 TAX, 호텔(2인1실), 전용차량, 식사,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이드 중국비자, 가이드/기사입				
불 포함	개인경비				
참고	노탑, 노효평, 노읍선.				
날짜	방문지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1일 03/15	부산 북경 중경	CA130 CA1435	10:30 12:45 14:05 16:25 19:00	김해공항 집결 김해공항 출발 북경공항 도착 북경공항 출발 중경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석:현지식
				HTL: 만류강년호텔(4성급) 또는 동급	
제2일 03/16	중경 무한	전용버스 MF8464	20:30 21:50	호텔 조식 후 •예릉 참배, 삼협박물관 관광 •조천문광장 관광 및 중경시 역사 기록에 있는 대하국 건립 황제 명옥진 역사기록 참관 중경 출발 무한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한식 석:현지식
				HTL: 재성호텔(4성급) 또는 동급	
제3일 03/17	무한주 무한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수주로 이동 •탄생지 참배 •명옥진 황제 의병사발사 청림산 -성터, 병영요새지, 일부시내관광. 석식 후 무한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TL: 재성호텔(4성급) 또는 동급	
제4일 03/18	무한 북경	CA1342 전용버스	08:25 10:25	호텔 조식 후 무한공항 출발 북경공항 도착 •세계 최대의 광장인 천안문 광장 •마지막 황제의 배궐인 자금성 석식 후 호텔로 이동	조:호텔식 중:오리구이 석:한식
				HTL: 은풍대이즈(4성급) 또는 동급	
제5일 03/19	북경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 •세계문화유산 팔달령 만리장성(케이불카 왕복) •명나라의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명13릉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TL: 은풍대이즈(4성급) 또는 동급	
제6일 03/20	북경 부산	CA129	08:25 11:45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북경공항 출발 김해공항 도착	조:호텔식

HNT 하나투어비즈니스

(110-170) 서울 서초구 우정로44번길 10 7층

HanaTourBusiness

1등 여행사 www.HANATOURBIZ.com

★ 중경/수주/북경 6일 ★ - 인천출발					
담당자	차장 김종우 02-2076-2222/팩스02-6007-1650 010-2707-8317			여행일정	2012년 3월 15일 ~ 20일
비용	1인당 : 1,450,000원				
포함사항	항공비, 항공 TAX, 호텔(2인1실), 전용차량, 식사,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이드 중국비자, 가이드/기사입				
불 포함	개인경비				
참고	노탑, 노효봉, 노읍선.				
날짜	방문지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1일 03/15	인천 북경 중경	CA124 CA1435	10:30 13:05 14:05 16:25 19:00	인천공항 3층 M카운터 11.12번 하나투어 테이블 미팅 인천공항 출발 북경공항 도착 북경공항 출발 중경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HTL: 만유강년호텔(4성급) 또는 동급	석:현지식
제2일 03/16	중경 무한	전용버스 MF8484	20:30 21:50	호텔 조식 후 *예릉 참배, 삼협박물관 관광 *조천문광장 관광 및 중경시 역사 기록에 있는 대하국 건립 황제 명옥진 역사기록 참관 중경 출발 무한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HTL: 재성호텔(4성급)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한식 석:현지식
제3일 03/17	무한주 무한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수주로 이동 *탄생지 참배 *명옥진 황제 의병사발사 청림산 -성터, 병영요새지, 일부시내관광. 석식 후 무한으로 이동 HTL: 재성호텔(4성급)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4일 03/18	무한 북경	CA1342 전용버스	08:25 10:25	호텔 조식 후 무한공항 출발 북경공항 도착 *세계 최대의 광장인 천안문 광장 *마지막 황제의 배궐인 자금성 석식 후 호텔로 이동 HTL: 은풍대어츠(4성급)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오리구이 석:한식
제5일 03/19	북경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 *세계문화유산 팔달령 만리장성(케이불카 왕복) *명나라의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명13릉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TL: 은풍대어츠(4성급)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6일 03/20	북경 인천	CA131	11:05 14:1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북경 출발 인천 도착	조:호텔식

HNT 하나투어비즈니스

(110-170) 서울 서초구 우정로44번길 10 7층

청양종친들 - 제례복을 차려입고 조상숭모의 예를 갖추다

청양지역 100여명의 종친(종친회장 명효식) 들은 지난해 11월16일(금) 11시30분 운곡면 후덕리 현모재(사당)에서 시제를 올리며 참배자 모두가 새로 지은 제례복을 입고 제례에 임하는 장관을 연출, 엄숙함과 경건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현모재 시제는 솟을삼문 공사, 계단과 안뜰의 화강석 공사, 그리고 주변환경 공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열린 송모행사였다.

시제는 4세조부터 13세조까지 스물 한분의 신위를 모셨으며, 제단에는 정성을 들여 깔끔하게 차려 올린 제물이 가지런히 놓였다. 시종일관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올린 이날 시제는 명제인 종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시제를 마친 후 명위진 대중회장을 비롯한 종친들은 청양의 구기자술과 제사 음식을 나누며 한동안 종사를 화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한편 이제까지 현모재 보수공사는 2013년 봄, 지붕기와를 교체하는 공사를 계속한다. 보수공사 관련 찬조금 출연은 명성호 대중회 고



문(전화 010-5493-0015)이 맡고 있다.

청양시제에 이어 11월 24일(토)에는 청계동 종친모임인 청계화수회(회장 명광주) 종친 30여명이 모여 시제를 올렸다. 시제는 원래 음력 10월 15일이나, 10여 년 전부터는 도회지에서 사는 종친들을 위해 음력 10월 15일 이전 일요일을 시제일로 정하여 시제를 올린다.

시제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체계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관(안)을 의결하고, 세해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사업진행을 위해 즉석에서 430만원의 찬조금을 모



금, 발전의지를 실감케 했다.

청계화수회는 2013년 시제를 양력 11월 17일(일)에 올리기로 결정하고, 시종일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 행사를 마쳤다.



청계화수회는 대중회 명위진 회장을 비롯한 약 1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문의는 명성용(전화 010-9910-9582) 부총무에게 연락하면 된다. <청양 명예기자 임금하>

명씨대종보 관련 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대종보 편집인 명광길 010-6220-8065 이메일: mkk2634@naver.com
- 명씨대종보 편집국장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adpromyung@naver.com
- 대중회 사무국장 명노준 010-2555-1760 이메일: mnj4395@hanmail.net